



강정진 센터장에게 듣는 금형기술센터

금형산업 부흥을 위해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지난 7월 19일, 금형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금형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참여한 이번 한국금형센터의 설립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형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공정 효율화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뜻이 모여 완성됐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큰 미래를 설계하게 된 강정진 금형기술센터장을 만나 금형기술센터의 역할과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들어보았다.

Q. 금형기술센터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소개해 주세요.
 금형기술센터는 생기원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금형 업계에 최적화하기 위해 설립된 실용화 센터입니다. 지난 2001년, 금형 관련 중소기업에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설립됐으며, 금형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천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금형 기술 개발, 애로기술 지원, 장비 및 인력 양성 등 금형 관련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Q. 지난 7월 개관한 한국금형센터에 대한 소개와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에 앞서 한국금형센터 설립 과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정부의 '금형 관련 기반 구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광주, 대구, 군산 등에 금형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방에 집중된 탓에 전국 금형 업체의 60%가 밀집한 수도권은 혜택을 받지 못했죠. 그러던 2009년, 수도권 금형 업체의 25%가 집약해 있는 부천에 '몰드밸리'가 조성되

면서 한국금형센터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첨단금형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기진회)가 주관기관으로, 생기원이 참여기관으로 한국금형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진회와 생기원, 두 기관이 한 곳에서 금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한국금형센터 안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기진회는 금형 시험 생산 지원 및 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등의 비즈니스 지원을, 생기원은 애로기술 및 R&D 지원 등을 수행,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기계산업진흥회와 금형기술센터, 그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형 업체는 원청 업체에 금형을 납품하기 전 시험 생산 과정을 거칩니다. 시험 생산은 중소기업이 쉽